▌이베로아메리카 제13권 1호 [2011. 6] : 255~286

까스따 전쟁 사이에 이루어진 국경 : 꾸르스옵이 국경형성에 미친 영향*

정 혜 주**
(Chung, Hea-Joo)

〈Abstract〉

La Frontera que Se Formó Durante la Guerra de Castas de Yucatán

Las fronteras de México. Guatemala y Belize se formaron cuando se indepedizaron desde España. Generalmente se adaptaron la división establecida durante la época colonial. Sin embargo, se han sucedido varios incidentes para alterarla. Uno de los incidentes más importantes fue 'la Guerra de Castas de Yucatán'. Los mayas aprovecharon esa oportunidad para expresar sus resentimientos que se formaron bajo el sistema colonial. Las rebeliones mayas ocuparon la parte oriente de la península y se formaron un país independiente que se duró más de 50 años. Para apacificar esta gran rebelión de los mayas indígenas, el gobierno mexicano dejó de perder el territorio de Belize que mantenía su soberania durante pasados tres siglos. Finalmente se formaron la frontera con Belize.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3)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E-mail: pztintin@pufs.ac.kr

[Key Words: Guerra de Castas/ Cruzob/ Los Pacíficos del Sur/ Icaiché/ Belize]
[주제어: 까스따 전쟁/ 꾸르스옵/ 남쪽의 평화적봉기자/ 이까이체/ 벨리즈]

Ⅰ. 들어가며

1821년 8월 24일, 삼색군대[1]의 사령관인 아구스띤 이뚜르비데와 스페인에서 도착한 후안 오도노후는 베라꾸르스의 꼬르도바에서 멕시코 제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서명을 하였다(Hernández Chávez 2006, 116). 이로써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의 독립이 시작하였다. 과테말라 부왕령[2]에 속해있던 중미의 5개국[3]은 같은 해 9월에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로부터 복잡한 정치상황을 거쳐 1838년 5월에 개별적으로 현재의 중미의 여러 나라로 독립하였다(민만식 et al. 1993, 73). 현재의 멕시코는 독립 당시의 과달라하라 부왕령(Audiencia de Guadalajara)의 대부분과, 멕시코 부왕령(Audiencia de México), 그리고 과테말라 부왕령(Audiencia de Guatemala)

1) 멕시코 국기에 나타난 세 가지 색깔이 의미하는 종교(religión), 결합(unión), 독립(independencia)을 유지하는 군대라는 의미로 멕시코 정부군대의 애칭.
2) 식민지의 정치조직의 우두머리는 왕과 인디아스의 조언자(Consejo de Indias)이다. 이 아래에 비레이(Virrrey)와 아우디엔시아(Audiencia)가 있었다. '새로운 스페인(Nueva España)'의 조직은 고베르나시온(gobernación), 우위의 알깔데(alcadías mayores), 꼬레히미엔또(Corregimiento)로 나뉘었다. '고베르나시온'은 경제적 중요성이 큰 도시, '우위의 알깔데'는 법률, '꼬레히도르'는 원주민마을과 엔꼬멘데로의 통제를 각각 맡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셋은 법률적인 것과, 정치, 세금 징수 및 관리를 임명하였다(Sanchez et.al 99). 요즈음에는 아우디엔시아라고 그대로 쓰는 경향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부왕령으로 썼다.
3)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구아, 온두라스, 코스타리카를 말함.

의 일부를 포함한다(그림 1). 독립 당시에 유까딴(Yucatán) 반도는 멕시코 부왕령에 속해있었다. 따라서 멕시코 중앙정부에 포함되어 독립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유까딴은 1821년 9월 15일 따로 독립을 선언하며 문제가 시작하였다. 당시 유까딴 반도의 중심지는 메리다(Merida)와 깜뻬체(Campeche)였는데, 멕시코 정부에 포함되어 독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연방주의자(Federalista)들이 우세한 메리다에서 단독 독립을 선언하자 멕시코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중앙집권주의자(Centralista)들이 많았던 깜뻬체의 유력자들은 메리다와 바야돌리드(Valladolid)를 공격하였다. 두 정치세력의 대립은 유까딴 반도에서 마야 원주민들이 봉기할 기회를 주었다. 마야 원주민들이 이끈 까스따 전쟁(La Guerra de Castas de Yucatán)은 메리다 및 깜뻬체의 라디노[4]와의 전쟁이었다. 2년간의 과격한 싸움 뒤에 원주민들은 유까딴 반도의 남동쪽에 위치한 현재의 까릴요 뿌에르또(Carillo Puerto, Quintana Roo)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정치조직을 지닌 마을을 형성하고 약 50여 년 동안 유까딴 및 멕시코 정부와 대치하였다.

현재의 깜뻬체, 유까딴, 낀따나로(Quintana Roo), 세 주를 포함하는 유까딴 반도는 동쪽으로 벨리즈, 남쪽으로는 과테말라의 뻬뗀(Petén)과 연결된다. '꾸르스옵(Cruzob)'[5]이라 불린 이들 원주민조직이 지배하고 있었던 과테말라와 벨리즈 사이의 지역은 호수와 강, 그리고 열대우림이 뒤덮인 곳으로 말라리아 등의 열대질병이 만연한 곳이었다.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인 반도의 북서쪽에 살았던 라디노들은 거의 접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구의 대부분은 마야원주민으로, 마야문명의 역사 및 문화를 공

4) 끄리오요로 알려진 스페인계 백인 지배계급으로, 유까딴에서는 라디노라고 불렀다.

5) 스페인어 십자가, Cruz와 마야어 사람의 복수형, ob이 조합되어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을 이룬다.

유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스페인이 침입하면서 만든 인위적인 경계인 유까딴, 과테말라, 벨리즈(Beliz)의 구분이 현장에서는 명확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았다. 꾸르스옵과 싸운 메리다 정부의 세력은 유까딴 반도의 북서부, 현재의 유까딴주와 깜뻬체주의 일부에 국한되어 있었다(그림 2). 현재의 낀따나로 주의 대부분을 꾸르스옵이 점령하고 있었고, 독립 후 30여 년 동안 50여 개의 정부가 들어설 정도로 혼란했던 멕시코 상황에서 벨리즈는 실제적으로 영국의 세력 아래 있으며 오히려 꾸르스옵에 협력하였다. 반도의 중앙은 까스따 전쟁에 참여하였던 또 다른 마야원주민 조직인 "남쪽의 평화로운 봉기자들"이 차지하였다. 메리다 정부는 꾸르스옵을 진압시키기 위하여 마침내 멕시코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남쪽의 평화로운 봉기자'들의 자주권을 용납하고 벨리즈에서는 영국의 주도권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사이의 국경은 까스따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한 1904년에(Careaga Vilesid 1990, 139) 비로소 오늘날의 지도상의 경계선이 나타났다.

까스따 전쟁은 유까딴 반도 남동쪽의 국경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글에서는 멕시코와 과테말라 및 벨리즈의 국경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며, 까스따 전쟁과 그 결과로 나타난 꾸르스옵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독립 당시의 유까딴 상황

멕시코에서 독립을 선언하자 1821년 9월 15일, 에체베리(Juán María Echéverri) 제독은 유까딴(현재의 유까딴주, 깜뻬체주, 낀따나로주를 합한 것)이 이구알라 및 꼬르도바 협정에 의거하여 스페인에서 독립하고, 멕

시코에 포함되는 것을 선언했다(Careaga 1990, 38; Ferrer 2004, 378). 그러나 1824년 2월(Careaga 1990, 37)에 이미 중앙집권 쪽으로 선 깜뻬체와는 달리 메리다는 상황에 따라 주도권이 바뀌었다. 이는 메리다와 바야돌리드에서는 연방주의와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끄리오요 내의 정치적 다툼이 첨예했고, 거기에 마야원주민의 봉기 상황이 겹쳤기 때문이다.

1540년부터, 스페인 식민자들은 유까딴 반도의 동남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하고 멕시코 중앙고원과의 연결이 손쉬운 북서부에 정착하였다. 그리하여 1540년부터 1850년 사이에 이곳에서 스페인 사람과 그 자손들은 끄리오요 계급을 형성하여 정치, 문화, 입법, 외교, 사회, 등 모든 것을 지배하며 정복된 땅의 자원뿐만이 아니라 노동력도 착취하였다. 여기에서 '까스따스(castas)[6]'는 중간의 역할을 하였다. 목동, 장원의 집사(mayordomo), 공장의 책임자(capataces) 등이다. 반면 마야원주민들(indígenas)은 머슴, 소작인으로 일하면서 농장-목장 근처에 자신의 밀빠(milpa)[7]를 가꾸어 소득의 일부분을 바쳤다. 메리다, 깜뻬체, 바야돌리드는 이러한 사회체재였다.

그런데, 끄리오요가 몰려 사는 메리다와 깜뻬체는 자연조건과 그에 따른 산업상황이 달랐다. 반도의 북부에 위치한 메리다와 바야돌리드 사이는 강우량은 적지 않으나 석회암지대의 특성상 물이 고이지 않고 흙이 적어서 열대초원을 이루어 목축업에 적합하였다. 메리다 북부에는 대목장(hacienda-ganadera) 형성되었고, 목장 주위로 옥수수도 대규모로 심었다. 18세기 말까지 메리다, 바야돌리드, 이사말, 띠시민에 이르는 지역에 이러한 농장 겸 목장이 몰려 있었다. 그리고 농장과 목장의 일은 마야원주민들의 노동력에 의존하였다(Sweeney 2006, 40).

---

6)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띠소가 대부분을 이루나, 그 외의 인종을 포함하여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7) 원주민 마을의 소규모 경작지.

다른 한편, 같은 시기에 깜뻬체의 까빌도(cabildo de Campeche)는 반도의 남서쪽, 현재의 깜뻬체에서 뻬뗀까지를 전부 관장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멕시코만으로 빠지는 강의 하구로 기름진 충적토로 이루어졌고, 열대기후로 강우량도 풍부하다. 끄리오요들은 과수원을 갖고 있었고 쌀과 가축들도 키웠다. 이곳은 농업생산물이 매우 풍부했다. 따바스꼬주 쪽으로는 가구를 만드는 나무들이 자랐고, 카카오와 담배도 풍부했다. 그리고 해변에는 염전이 발달되어 있었다. 어업도 번성하고, 항구도 발달되어 있었다. 깜뻬체의 항구는 멕시코 중앙정부와 무역을 하였고, 깜뻬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소금은 독립 당시의 혼란 상황 중에도 값이 떨어지지 않았다(Ibid, 41). 그러나 깜뻬체도 문제가 있었다. 열대우림 속에 만연한 말라리아와 열대 질병들이다. 따라서 깜뻬체의 동남쪽은 끄리오요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다.

스페인 사람들과 끄리오요들에게 매여 있지 않은 마야원주민들은 중앙과 남쪽의 셀바 지역과 동부 해안에 흩어져 살았다. 이곳은 자연환경이 열악하여 백인들이 접근을 꺼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원주민공동체가 다수 흩어져 있었다. 끄리오요들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동안 유까딴 반도의 동과 서, 두 지역은 서로 부딪치지 않았다. 독립 직후, 1820년에서 1840년 사이에 동쪽의 변경에 위치한 원주민사회가 크기 시작했다(Careaga 1990, 36). 그리고 두 지역은 점차로 부딪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법률적으로 끄리오요와 마야원주민을 차별을 없애는 일이 진행되었다. 이미 1812년 말에 스페인의 까디스(Cádiz)에서는 '원주민의 분배'[8]와 '개인적 헌신'[9]을 금하는 법을 공포하였다. 거기에 '스페인 왕가에 보내는 공물'[10]과 공공부역에 동원되는 것도 없앴다. 또한 결

8) 스페인 원어는 repartimiento
9) 스페인 원어는 trabajos personales

혼한 원주민과 25세 이상의 원주민에게 땅을 주고, 해외에서 공부하는 원주민에게 장학금 지급도 선포했다(Careaga 1990, 37). 1822년 7월, 유까딴에 노예제 폐지와 노예수입을 금지하는 법령이 포고되었다. 1824년 1월 법에 의해 흩어져서 살던 주민들이 모여서 살도록 하고, '마을 공동의 땅'[11]들이 유까딴정부로 귀속되었다. 1825년 4월에 유까딴주 헌법을 선포했다. 헌법에 따라 마야원주민들도 권리와 의무를 가진 유까딴 시민으로 인정하고, 노예제도의 폐지를 비준하였다. 그러나 농장에 있던 마야 일꾼들은 여전히 매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주인과 그 전의 빚을 청산하지 못하면 그대로 매여 있어야했기 때문이다. 또한 빚을 다 갚아도 두 달 후에야 벗어날 수 있게 법을 만들었다. 게다가 시장(alcalde), 주인(patron), 감독관(mayordomo)들의 채찍질 등의 체벌을 허용하였다(Ibid, 38). 몇 달 후 유까딴 헌법은 원주민 공화국(República Indígena)[12]의 재설치를 선포하고, 성직자들에게 내는 세금을 법제화했다. 까시께(cacique)와 법집행자들(justicias)은 민간 및 종교적 세금[13]을 징수하고, 이 세금에서 6%를 갖고, 마야원주민들 중의 빚진 자들을 차압할 수 있었다(Rugley 1996, 68-78).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한 마야원주민들의 자유는 실제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아진 점이 없었고, 공물은 식민지시대보다 더 부과되었다. 선거권 또한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는 데에는 투표할 수 없었지만, 연방주의자와 중앙집권주의자의 싸움에 그들의 투표권이 이용되었다(Rugeley 1996, 29). 메리다와 바야돌리드 등의 대도시 주위에 사는 원주

10) 스페인 원어는 tributos a la Corona
11) 스페인 원어는 tierra comunal
12) 식민지시절에 백인들 정치조직외에 마야원주민 공동체의 정치조직으로 하는 원주민 지도자 바땁이 우두머리였다. 끄리오요와 원주민의 중간자 역할을 하며 조세, 부역 등의 행정명령을 원주민에게 전달하는 기구였다.
13) 스페인 원어는 obvención

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변경에 흩어져서 살던 원주민들의 사회는 커져가는 상황이었다.

유까딴은 독립 당시부터 강력한 정부를 세우려고 애썼지만, 이미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유까딴(후일 유까딴과 깜뻬체로 갈라지기 전)에서 지배 주체는 농업, 목축업 및 어업으로 이루어진 부에 기초한 끄리오요 집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각각의 이해에 따라 중앙집권주의자(centralista)와 연방주의자(federalista)로 갈라졌다. 독립과 함께 스페인과의 무역이 끊어졌는데, 아직도 스페인 치하에 있는 쿠바와의 무역이 중요했던 유까딴의 입장에서는 독립을 하여도 스페인과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독립과 함께 식민지 시대에 성립된 사회질서가 흔들리자 유까딴의 상품은 멕시코만, 꾸바, 유럽에서 값이 폭락했다(Careaga 1990, 42). 그리고 쿠바의 하바나에서는 유까딴의 고기가 리오 데 라 쁠라따산과 경쟁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외에 초, 나무, 면, 사슴뿔, 등도 같은 상황이었다. 유까딴의 중심도시인 메리다와 바야돌리드도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메리다에서 1825년 유까딴의 자주독립 선언, 1839년 바야돌리드에서 멕시코에 편입 선언, 1843년 메리다에서 다시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등, 유까딴 반도의 상황은 혼란하였다(Ferrer 2004; Meyer & Beezeley 2000).

이 혼란 속에서 두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는 1838년 5월, 띠시민 출신의 산띠아고 이만(Satiago Iman)이 연방주의자인 부지사 바르바차노(Fernando Barbachano)가 쫓겨난 데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멕시코 중앙정부는 군대를 보내었다. 그들은 전쟁위원회에 그를 고발하였고, 그는 10개월을 감옥에 갇혔다. 멕시코 군대가 깜뻬체로 돌아간 후 탈출한 이만은 그를 도와주면 교회의 세금[14]을 면제해 주겠다는 조건으

로 지역의 원주민들을 모았다 대부분이 마야 원주민이었고 일부는 메스띠소였다. 이를 계기로 마야원주민들은 끄리오요들의 전쟁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 후 원주민들은 총을 갖게 되었고, 마을마다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 바땁(Batab)[15]을 따라 전투에 나서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1846년 1월, 유까딴 주의회가 멕시코 중앙정부의 우위를 폐지하고 독립을 재천명하자 중앙집권주의자인 안또니오 뚜루헤께(Antonio Trujeque)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이만과 마찬가지로 마야원주민들이 대부분인 군대를 이끌고 바야돌리드를 공격했다. 바야돌리드는 유까딴의 모든 도시들 중에서 가장 보수주의적이었다. 식민지 시절에 형성된 계급 구별이 독립을 한 후에도 그 어느 곳보다 뚜렷하였다. 따라서 끄리오요에 대한 원주민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주위의 마을 원주민들은 공격하는 뜨루헤께의 군대와 아무 관계도 없었지만, 오직 바야돌리드를 공격하기 위해서 포위에 참가하였다. 1월 15일, 전면적인 공격 명령이 내리자, 그들은 매우 과격하게 쳐들어갔다. 바야돌리드를 수비하고 있던 베네가스(Venegas) 대령이 공격이 시작될 때 흰 기를 올렸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는 포로가 되어 시살(Sisal)로 끌려갔다. 1월 17일, 과장일 수도 있지만, 난동에 참가한 천명의 원주민들이 베네가스의 감옥으로 난입하여 그를 살해했다고 했다(Reed 2002; Dumond 2005).

연방주의자와 중앙집권주의자, 양쪽에서 마야원주민을 참여시켜 공격을 한 이 두 사건은 독립 후에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한 마야원주민이 무장하고 봉기할 계기를 제공하여, 이후 58년 동안 계속되는 까스따 전쟁(La Guerra de Castas de Yucatán)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

14) obvención, 교회의 세금으로 마야원주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세금이었다.
15) 마야 사회조직의 중간 수장으로, 각 마을의 촌장 정도 된다. 식민지 시절에는 마야원주민 집단의 유일하고 직접적인 수장이었다. 까시께(cacique)라고도 한다.

Ⅲ. 세 개의 세력권의 형성

멕시코는 남쪽으로는 과테말라, 동쪽으로는 벨리즈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는 모두 고대 마야문명 지역으로 현재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질인 이 지역이 세 나라로 분리된 것은 식민지 시대에 인위적으로 나눈 부왕령의 경계와 카리브 해에 대한 영국의 이권 개입에서 비롯되었다. 1850년 당시의 유까딴의 동부의 남부에는 반란의 주역인 꾸르스옵의 영향 아래에 있는 지역, 그들과 대립하고 메리다 및 멕시코 정부에 협혁하고자 하는 마야 원주민 집단의 영역, 그리고 오늘날의 벨리즈 영역으로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여기에 유까딴 반도 전체를 멕시코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멕시코 중앙정부와 원주민의 반란을 종식시키고자하는 메리다 정부의 의지에 의하여 각 지역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었다. 이 장에서는 유까딴, 깜뻬체 및 낀따나로 주에서 벨리즈와의 경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마야원주민이 어떻게 관계가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찬 산따 꾸르스(Chan Santa Cruz)의 형성

중앙집권주의자인 뜨루헤께가 바야돌리드를 공격한 것은 연방주의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마야원주민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세실리오 치(Ceciclio Chi), 하신또 빠뜨(Jacinto Pat) 및 마누엘 안또니오 아이(Manuel Antonio Ay), 세 바땁이 모였다는 정보를 얻자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는 죄목을 씌워 아이를 처형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을 찾기 위하여 빠뜨의 농장인 꿀룸삐치(Culumpich)를 공격하고 주민을 학살하였다. 1847년 7월 30일, 세실리오 치가 마야원주민들을 이끌고

떼삐치(Tepich)를 공격하여 꿀룸삐치의 학살에 대해 보복하였다. 이 후 하신또 빠뜨가 합류함으로써 '까스따 전쟁'이 시작되었다(정혜주 2011, 134-135; Reed 2002, 62-67). 1848년 2월까지는 마야원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승리하였다. 유까딴의 대부분의 지역이 마야 반란군의 영향아래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마야원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연방주의자 주지사 바르바차노가 하신또 빠뜨에게 협상을 제의했다. 그들은 추까깝(Tzucacab)에서 만나 협정을 맺었다[16]. 협정에는 마야원주민들의 부역(개인적 헌신)을 없애고 각종 세금을 줄이는 등 원주민의 지위가 향상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전쟁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끄리오요의 대표로 바르바차노가 되는 것이 멘데스[17]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치에게는 마야 사람들의 대표로 하신또 빠뜨만을 지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추까깝 협정은 깨어지고 전쟁은 계속되었다. 바르바차노는 다시 대통령으로 추대된 산따 아나에게 멕시코의 한 주로 될 것 제의하였고, 멕시코 정부는 돈과, 장총, 총알, 그리고 화약을 보냈다(Reed 2002, 113). 1848년 8월 17일 메리다는 멕시코의 한 주가 되는 것을 선언했다. 다른 한편, 추까깝 협정이 깨어진 후 마야반란군측은 상황이 나쁘게 전개되었다. 자발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였던 주민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농사를 지으러 돌아갔고, 세실리오 치가 부하에 의해 살해당했으며, 하신또 빠뜨 또한 치의 부관에게 살해당했다. 1849년이 다 가기 전에 마야원주민들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두 바땁이 죽고 반란군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16) 추까깝 협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원주민들의 개인적 헌신을 없앨 것; 2. 세례와 결혼에 대한 권리를 줄일 것; 3. 마야사람들은 그들의 밭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 빌리거나 차압한다는 협박받지 않고; 4. 모든 고용인들은 그들의 빚을 탕감할 것; 5. 바르바차노가 평생 주지사가 될 것; 6. 하신또 빠뜨가 원주민들의 수장이 될 것; 7. 마야사람들의 장총을 돌려줄 것(약 2500정); 8. 아구아 아르디엔떼에 붙인 세금을 없앨 것 (Reed 1971, 94).

17) 멘데스가 처음으로 메리다의 주지사가 되었을 때 바르바차노는 부지사였다. 그 후, 멘데스는 중앙집권 쪽으로 기울고 바르바차노는 연방주의를 고집했다.

것이다(Dumond 2005; Reed 2002).

지도자들을 잃은 마야 사람들은 반도의 동쪽으로 밀렸다. 빠뜨의 부관이었던 호세 마리아 바레라(José María Barrera)는 유까딴 반도의 남동쪽의 찬 산따 꾸르스(Chan Santa Cruz)[18]까지 물러났다. 여기서 바레라는 돌이 삐죽한 언덕 사이의 한 벼랑 아래 있는 세노떼를 발견했다. 세노떼로 들어가는 길은 낮고 어둡고 공간이 좁아 마야원주민들이 신비스러워하는 조건이 되었다. 그곳에서 동굴입구에서 자란 까오바 나무에 새겨진 약 7-10 cm길이의 십자가를 발견했다. 바레라는 십자가를 바닥에 꽂고 기도하고, 그들 사이에 있던 복화술사 마누엘 나우아뜨(Manuel Nahuat)가 배에서 울리는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고 적들과 싸우라"고 신이 답하는 듯이 답을 하였다 바레라와 동료들은 마야사람들을 이끄는 신이 나타났다고 선포하고 그 곳에 성소를 지었다. 전쟁에서 도망친 마야 사람들이 몰려왔다. 1850년, 3월 23일, 꼬로넬 대령이 220명을 데리고 이 성소를 습격했다. 아무도 없던 그곳에 천명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마누엘 나우아뜨는 이 습격에 죽고, 바레라는 도망쳤다(Reed 2002, 136-143).

도망친 마야 사람들은 어둠을 틈타 '말하는 십자가'를 도로 찾아왔다. 이제 바레라는 더 이상 복화술로 말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카드(점술)로 성스러운 말씀을 전했다. 바레라는 하나로 뭉치는 종교적 정신을 세우려고 하였다. 마을 입구에 십자가가 있는 것[19]에 익숙한 마야 사람들이 찬 산따 꾸르스에 모여 들었다. 그리하여 찬 산따 꾸르스는 까스따 전쟁의 계승자들의 마을 및 요새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말하는 십자가(cruz parlante)'를 따르는 사람들, 꾸르스옵(Cruzob)[20]이라 불렸다(정혜주

18) chan은 마야어로 '작은'이란 뜻이다. santa는 스페인어로 '성스러운', cruz는 '십자가'이다. "작은 성스러운 십자가"라는 뜻이다.

19) 마야사람들의 마을의 공동광장의 입구에는 흔히 십자가가 세 개 세워져 있다.

2011, 140).

2. '남쪽의 평화로운 봉기자(Sublevados Pacíficos del Sur)'[21] 와 이까이체

바레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꾸르스옵의 성소를 세우는 동안에 앙헬리노 이쯔아(Angelino Itzá)와 호세 마리아 축(José María Tzuc)이 이끄는 다른 한 그룹은 온도(Hondo)강 가까이의 치찬하(Chichanhá)로 물러났다. 이 도시는 식민지시대에도 있었는데, 1695년에 마을의 주민들이 그 곳에 사는 스페인사람들을 모두 살해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 계획이 발각되자 모두들 셀바로 도망쳤었다. 1733년부터 다시 사람들이 살았지만 까스따 전쟁이 일어나자 주민들은 전쟁에 참여하거나 도망가기 위하여 뿔뿔이 흩어졌었다. 1849년에 반란군들이 동쪽으로 밀려난 뒤 치찬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왔다. 뒤이어 유까딴 정부군이 바깔라르(Bacalar, Quintana Roo)를 정복하자, 치찬하는 반란군들이 영국 사람들로부터 무기를 사는 곳으로 사용되었다(Dumond, 103-138).

유까딴 정부[22]는 치찬하를 이용하여 꾸르스옵이 무기를 구하는 것을 알게 되자 1851년 2월 말에 유까딴 정부는 뻬뗀(Petén, Guatemala)의 주지사[23]인 멘데스(Modesto Méndez)를 앞세워 과테말라와 앙헬리노 이쯔아 사이에 첫 번째 평화 협약(convenio de paz)을 맺도록 하였다. 유까딴은 꾸르스옵과 유까딴 사이의 완충지대를 원했고, 치찬하는 점점 더 세

---

20) cruz는 스페인어로 십자가, ob은 마야어로 복수를 의미한다. 즉 "십자가들"이란 의미이다.

21) Sweeney(2006)는 '남쪽의 평화주의자(Los Pacíficos del Sur)'라고 부른다.

22) 1848년 8월 17일 이후 유까딴 정부는 현재의 유까딴과 깜뻬체를 함께 대표하는 정부였다.

23) 스페인 원어는 corregidor

력을 확장해가는 꾸르스옵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유까딴의 보호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과테말라 및 유까딴 정부는 꾸르스옵에게 협조하지 않는 대신에 치찬하의 자주권을 보장하였다(Careaga 1990, 70).

1853년 9월, 이쯔아를 이어 지휘봉을 잡은 축은 벨리즈의 판쿠트(Fancourt)의 중재로 유까딴 정부의 대표인 깐똔(Gregorio Cantón)과 평화협정을 맺었다. 협정의 내용은 첫 번째 조약보다 좀 더 진전한 것으로, 치찬하가 꾸르스옵을 대항하여 싸우고, 대신 유까딴은 그들의 무기 소유를 보장하고,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었다. 특히 유까딴이 원하는 것은 벨리즈에서 찬 산따 꾸르스로 가는 무기와 탄약을 차단하는 것이었다(Careaga 1990, 69-71).

이로써 치찬하(Chichanhá), 이스깐하(Ixkanhá), 메사삐치(Mesapich), 로츠하(Lochá)는 '남쪽의 평화로운 봉기자(sublevados pacíficos del sur)'[24]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들은 '대체적'으로 유까딴에 협조하였다. 그들은 유까딴의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자주적으로 살았다.

'동쪽의 무서운 봉기자(sublevados bravos del oriente)'인 '꾸르스옵'은 이 '협약'이 반란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다. 바레라(Barrera)는 500명을 이끌고 치찬하를 공격하여 앙헬리노 이쯔아를 사로잡는 등, 여러 차례 공격을 하였다. 1857년 치찬하의 대부분의 주민들은(약 8000명) 꾸르스옵에 밀려서 도망갔다. 이들 중에도 독립되어 사는 것을 지지하는 쪽과 벨리즈로 옮겨가서 평화 속에서 살고자 하는 쪽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약 3000여명은 벨리즈로 샀다. 나머지 중에서도 급진적인 무리는 '남쪽의 평화로운 봉기자(sublevados pacíficos del sur)'과 맞지 않았다. 이들

24) 이들은 '남쪽의 평화주의자 (Los Pacíficos de Sur)'라고도 물렸다.

은 마야의 오래된 거주지였던 산따 끌라라 데 이까이체(Sante Clara de Icaiché)로 옮겨갔다. 바로 과테말라, 벨리즈, 깜뻬체와의 국경과 마주하는 곳이었다. 유까딴주 정부나, 멕시코로부터 그들이 사는 땅에 대해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적이 없고, 벨리즈 정부와는 항상 반목하였던 이까이체는 1860년 경에 약 1000여명이 모인 마을을 이루었다. 마을의 중심에 벨리즈, 깜뻬체, 뻬뗀, 메리다와 정치 및 상업적인 연결망을 갖고 있었다. 이까이체 주민의 대부분은 원래 꾸르스옵이었다. '남쪽의 평화주의자들' 및 이까이체가 꾸루스옵과 불화하게 된 데에는 벨리즈와의 관계도 문제가 되었다. 벨리즈 사람들은 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띤떼(물감) 나무와 까오바 나무를 잘라 생활을 하여 왔다. 벌목비를 내기로 합의하였으나 벨리즈 사람들은 충실하게 지키지 않았다. 결국은 1856년 8월 치찬하의 루시아노 축(Luciano Zuc)이 이끄는 치찬하의 사람들은 벨리즈 땅을 침공하여 블루 크릭(Blue Creek)에 있는 회사를 점령했다(Careaga 1990, 70). 이후 치찬하와 벨리즈의 영국인들의 싸움은 계속된 반면에 꾸르스옵은 전쟁을 수행할 무기를 사기위해 벨리즈와 동맹을 유지해야 했다.

3. 경계 지역의 벨리즈 상황

벨리즈는 이미 1640년경부터 깜뻬체와 카리브해에서 활략하는 영국의 해적들이 숨고 획득물을 정리하는 땅이었다. 나중에는 물감나무를 자르는 사람들이 거주했다.

영국은 스페인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땅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주기를 청했다. 그러나 1739년 스페인이 유럽의 전쟁에서 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1763년에 스페인과 영국은 다시 조약을 맺었다. 벨리즈는 스페인에 속한다고 분명히 인정하였지만, 경계를 확실히 하지 않았다. 그

리하여 영국인들이 나무를 자르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이 후 스페인은 또 영국과의 전쟁에서 지고, 1783년 다시 조약을 맺었다. 여기에서는 벨리즈 강(río Walliz o Belice), 누에보 강(río Nuevo), 온도 강(río Hondo)이 경계라는 것을 밝혔다. 벨리즈와 멕시코의 경계가 공식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조약이었다. 그러나 곧 파기하고, 1786년 7월에 런던에서, 그리고 1783년 9월 3일에 베르사이유에서, 벨리즈가 스페인에 속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1798년 스페인은 벨리즈를 공격했는데, 지고 말았다. 이때부터 영국은 승리의 대가로 벨리즈의 주권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1802년 아미앵 평화협정(el Tratado de Paz de Amiens)에서 1796년 이전의 상태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1817년과 1819년에 영국의회는 벨리즈가 영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영국은 계속 벨리즈에서 활동하였다. 1826년 12월 26일, 멕시코와 영국은 1783년과 1786년에 맺은 조약을 존중하고, 영국은 오로지 물감나무를 자르는 식민지만 가진다고 인정했다(Sanchez et al.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리즈에 사는 영국인이 늘어갔고, 마야원주민들과 무기를 비롯한 밀무역도 늘었다.

Ⅳ. 분쟁과 경계의 확립

1. 꾸르스옵, '남쪽의 평화로운 봉기자들', 벨리즈 사이의 분쟁

1821년 독립 당시 유까딴 정부의 세력이 미친 곳은 반도의 북서쪽의 일부에 불과했다. 나머지 땅에는 마야원주민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으며, 멕시코 부왕령에 속해 있었으나 실제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자연환경 때

문에 어떤 권력도 효과적으로 미치지는 못하여 끄리오요의 입장에서는 버려진 땅이었다. 까스따 전쟁에서 밀린 마야원주민들이 반도의 동쪽에서 자리를 잡자 여러 세력들이 충돌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전쟁의 주체로서 그들만의 자유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던 꾸르스옵과 그들을 반란자로 규정하고 평정하려는 유까딴 정부, 그 둘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살고자 했던 '남쪽의 평화로운 봉기자들', 멕시코 땅이었지만 넘나들며 이득을 취하고 살았던 벨리즈의 영국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 충돌은 꾸르스옵이 찬 산따 꾸르스를 세운 1850년부터 시작하여 찬 산따 꾸르스가 버려진 1902년까지 계속되었다.

4개의 집단의 전략은 각각 달랐다. 유까딴 정부는 꾸르스옵과 직접적인 전투를 하면서 동시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꾸르스옵을 고립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유까딴 정부는 까스따 전쟁 때문에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났던 마야원주민들이 유까딴과 꾸르스옵사이의 경계지대에 다시 살면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공포하였다(그림 3). 떠도는 마야사람들이 정착한 경계지대가 바로 '남쪽의 평화로운 봉기자들'이 있는 지역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유까딴 정부를 지지하고 꾸르스옵을 멀리해야 했다.

꾸르스옵이 볼 때에 이들은 배반자였다. 그리고 유까딴 정부가 자신들은 공격하고자 할 때 길을 빌려주는 자이기도 했다. 따라서 꾸르스옵은 수시로 이들을 공격하였다. 1860년 2월, 꾸르스옵은 치찬하를 세 번째로 공격했다. 광장을 점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바깔라르로 잡아갔다. 유까딴에 빼앗겼던 바깔라르를 꾸르스옵이 다시 점령했기 때문에 치찬하는 유까딴의 비호를 받지 못했다. 로츠하(Lochha)와 메사삐츠(Mesapích)도 1862년 12월의 꾸르스옵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1864년에는 스깐하(Xkcanha)가 유까딴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들고 일어났다. 1868년에는

‘남쪽의 평화로운 봉기자들’의 사령부를 스깐하(Xkanhá)로 옮기고 말았다(Careaga 1900, 69-71).

다른 한편, 벨리즈와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한 쪽은 이까이체였다. 이까이체로 사람들을 이끌고 왔던 축이 1864년 12월에 죽자 마르꼬스 까눌(Marcos Canul)이 수장이 되었다. 그는 벨리즈에 있는 영국회사의 나무꾼으로 일하였었고, 살해자로 그 쪽의 법정에 선 적도 있었다. 1866년 4월 27일, 125명의 남자를 앞세우고 쿠아름 힐(Qualm Hill)을 공격하여 두 명의 식민자(colono)를 죽이고 79명(여자 14명 어린이 8명 포함)을 이까이체로 포로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의 몸값으로 12,000 불을 요구했다. 막시밀리아노 치하의 새 법을 증거로 제시하면서[25], 온도 강의 왼쪽은 그들에게 속하니 지난 8년 동안의 사용료를 내라고 하였다. 두 달 후, 파견단이 이까이체로 가서 인질들은 구하고 까눌과 협상하여 사용료를 줄였다(Ibid, 96-97). 이는 온도 강 서쪽이 유까딴의 땅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866년말, 이까이체는 다시 벨리즈의 땅으로 쳐들어가 1867년 1월 인디안 교회를 점령하고 편지를 남겼는데, 국경 마을의 사용료뿐만이 아니라, 원래 유까딴의 땅에 속했던 오렌지 워크, 꼬로살, 그리고 벨리즈까지 포함하였다. 일 년에 19,000 빼소를 요구하였다. 이번에는 2월에 할리(Harley) 대령이 지휘하는 서인도(Indias Occidentales)분대가 공격하는 것으로 답을 하였다. 이후 한동안 서로의 공격이 뜸하였지만, 1872년 9월, 까눌은 다시 오렌지 워크를 공격하였다. 영국과 미국 군인들이 광장을 방어하고 있었다. 까눌은 부상을 입었고 얼마 후에 죽었다. 그를 이은 라파엘 찬(Rafael Chan)도 1875년과 1879년에 온도 강을 넘어 벨리즈를 공격하였다(Ibid, 98-99).

꾸르스옵은 벨리즈와의 관계가 달랐다. 벨리즈는 전쟁의 유일한 후원

25) 1864년 막시밀리아노 정부가 들어서자 벨리즈의 살스톤(Sarstoon)강과, 과테말라의 뻬뗀(Peten)까지 유까딴에 속한다고 선언하였다.

자였다. 물론 돈을 주고 사는 것이지만, 벨리즈를 통하여 유까딴 정부와 싸울 무기와 탄약을 얻었다. 꾸르스옵에게는 역사적으로 그 땅이 유까딴에 속하는 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차피 유까딴 반도 전체가 마야원주민들이 사는 곳이고, 스페인도 영국도 권리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꾸르스옵의 적은 유까딴 정부이지만, 벨리즈와 동맹관계에 있었으므로 이까이체와 전투를 피할 수 없었다. 1870-71년 사이에 까눌이 이끄는 이까이체가 벨리즈의 꼬로살을 공격했을 때 꾸르스옵은 500여명이 꼬로살의 광장에서 방어하며 벨리즈를 도왔다.

한편, 꾸르스옵과 유까딴 정부군 사이의 전투는 지지부진했다. 전선은 여전히 북부 중앙의 뻬또와 조노첼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협정을 맺고 평화롭게 전쟁을 종결하고자하는 시도도 여러 번 있었다. 그 첫 시도는 1865년 2월에는 평화협정을 맺고자 한 것이었다. 갈베스(José María Gálvez)장군이 시살 항구에서 한 연대를 이끌고 찬 산따 꾸르스를 향했다. 그는 바야돌리드에 사령부를 세우고 멘데스(Juan José Méndez)대령과 시에라(Manuel Sierra Ó'Relly) 신부와 함께 벨리즈로 가서 반란군들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사이에 꾸르스옵의 지도자가 바뀌어서 협정은 무산되었다. 두 번째로 1865년 11월에 까를로따 여황이 찬 산따 꾸르스를 방문했지만 역시 성과는 없었다.

그러자 직접 꾸르스옵의 본부를 치고자 하였다. 1866년 7월, 뜨라꼬니스(Daniel Traconis) 대령이 찬 산따 꾸루스로 들어가는 입구인 띠호수꼬로 가서 꾸르스옵과 맞붙었다. 그러나 복병 작전에 말려 200여 명의 군사를 잃고 띠호수꼬에 고립되었다. 2개월 후, 꾸르스옵이 다시 공격했으나 광장을 점령하지 못하고 포위를 풀었다. 뜨라꼬니스는 메리다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전선은 다시 바야돌리드 근처의 뻬또로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협정을 하고자 한 시도는 1876년 11월, 디아스(Porfirio

Diaz)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이다. 대통령의 허가를 받은 뜨라꼬니스 대령은 1884년 1월, 벨리즈의 꼬로살(Corozal)에서 끄레센시오 뿌뜨(José Crescencio Poot)와 후안 축(Juan Chuc)을 만나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양쪽은 서명을 하고 유까딴의 비준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술에 취한 뜨라꼬니스 측의 장교가 꾸르스옵의 외교단을 습격했다. 협정은 파기되었다. 이것이 유까딴과 꾸르스옵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협정이었다.

1885년 8월, 뿌뜨와 축이 안또니오 줄(Antonio Dzul)에게 살해되었다. 줄은 협정에 반대하고. 다음 해 2월, 줄은 500여 명의 꾸르스옵을 이끌고 띠스우아라뚠(Tixhualatún)과, 조노첼(Dzonotchel)을 공격하였다. 유까딴 정부와 꾸르스옵과의 싸움은 끝이 없는 듯이 보였다. 유까딴은 멕시코로부터 물자를 지원을 받는 반면에 꾸르스옵 식량과 무기가 점점 고갈되어 갔다. 1887년 1월이 되자, 아니센또 줄(Aniceto Dzul)이 찬 산따 꾸르스를 영연방제국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을 정도로 꾸르스옵은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Dumond 2005, 574-601).

그 사이에 메리다에서는 유까딴 애국회(la Sociedad Patriótica Yucateca)를 만들고 꾸르스옵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은 꾸루스옵에 포로로 되어있는 자들의 몸값을 모으는 것이었다. 13명 남자와 44명의 여자를 포함한 57명이었다. 그들은 전면전을 선포하면서도 전쟁 외의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1892년 7월에 꾸르스옵과 싸운 모든 사람들에게 표창을 하고, 동시에 유까딴과 찬 산따 꾸르스 사이의 경계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시와 주의 세를 면제해주었다(Careaga 1990, 107). 1893년 이후 벨리즈는 꾸르스옵에게 더 이상 무기를 팔지 않았다. 유까딴과의 사이의 마을은 모두 꾸르스옵과 맞섰다. 유까딴은 마침내 찬 산따 꾸르스의 고립을 이끌어낸

것이었다.

2. 경계의 확립

2.1 벨리즈와의 경계

1850년과 51년에 벨리즈는 영국의 식민지로서 총독을 요구했다. 1850년 4월, 영국과 미국은 운하를 만드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벨리즈에 대한 영국의 권리를 인정했다. 그 이후 영국은 더 이상 멕시코와 벨리즈의 주권에 대해서 논하기를 피했다. 그런데 벨리즈의 주민들은 멕시코와 경계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멕시코 경계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가 나무를 자르기를 원했다. 1850년 꾸르스옵이 찬 산따 꾸르스에 정착하고 "남쪽의 평화로운 봉기자들"이 이까이체에 정착하자 분쟁이 더욱 심해진 이유이다.

1856년 4월, 멕시코는 벨리즈 공화국의 공사로 마르띠네스 이 로사도(José Martínez y Rosado)를 임명했다. 이는 벨리즈를 독립적인 나라로 인정하여 찬 산따 꾸르스와 벨리즈의 지속적인 불법 무기 거래를 차단시키려는 뜻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멕시코는 1786년의 조약을 포기하고 멕시코와 벨리즈[26]의 경계와 벨리즈에서의 영국 주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마야 반란군을 토벌하는데 협력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1887년에 마리스칼(Mariscal)이 제안하고, 1893년 마리스칼과 스펜서가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계는 '온도강'과 '푸른 내(arroyo azul)'으로 한다.
2, 벨리즈의 거주자들은 무기와 화약을 마야원주민들에게 팔지 않는다.
3, 양쪽의 경계에서 마야 반란군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26) 벨리즈는 영국이 주권을 장악한 뒤에 영국령 온두라스라고도 부른다.

않는다(Careaga 1900, 131-132).

위의 조약으로 온도 강이 벨리즈와 멕시코의 경계라는 것을 확정하였다. 꾸르스옵이 점령하고 있던 거대한 지역은 멕시코의 경계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비준은 1897년 7월 26일에 정식으로 하였다. 같은 해 11월 25일, 벨리즈는 반란군에게 무기와 탄약을 파는 것을 금지하였다.

2.2 까스따 전쟁의 종결

1895년 1월, 멕시코 중앙의 지지를 받고, 유까딴 정부는 꾸르스옵을 물리치기위한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투표를 통하여 의회의 지지를 얻어 내었다(Careaga 1990, 137). 전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흥미로운 부분이다. 전쟁의 경계선은 아직도 반도 북부의 조노첼(Dzonochel)이었다. 유까딴 정부는 통화선을 깔고, 도로를 닦고, 마을을 하나씩 살피며 가는 등 신중하게 찬 산따 꾸르스로 접하였다. 그리고 멕시코 전국에서 지원한 지휘관들을 앞세워 육지와 바다로 이동하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당시의 대통령에게 일일이 보고되고 있었다. 유까딴 정부는 1895년에 다시 시작한 전쟁을 1901년 1월에야 끝을 내었다. 당시 꾸르스옵은 연방정부 군대가 남쪽과 서쪽을 막고 있었고, 벨리즈의 동맹과는 고립되어 있었다. 특히 1893년에 벨리즈가 유까딴과 협약을 맺은 뒤에 전혀 무기를 구입할 수 없었던 것이 꾸르스옵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약 5년간 계속된 마지막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유까딴 군과 꾸르스옵이 전투를 한 적은 별로 없었다. 유까딴 측의 전쟁 예산 확보, 공격로 및 주위시설 확보, 등 사전준비에 들인 시간과 돈이 훨씬 많다. 유까딴과 꾸르스옵 사이의 전쟁이 길고 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꾸르스옵에 대한 공포가 유까딴 사회에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은 듀몽드(Dumond 2005)와 리드(Reed 2002)에서

뽑아 정리한 까스따 전쟁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와 같은 전쟁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로렌소 가르시아 장군은 조노첼, 이츠물, 사깔라까, 띠호수꼬, 즉 버려진 마을들에 요새를 세우고 군대와 세 개의 국경 수비대의 도움을 받아 1895년 11월 4일에 뻬또와 조노첼을 연결하는 전화망을 개설하였다. 이듬해 3월에는 공병대가 도착하여, 교통을 위해 숲을 자르고 길을 내었다. 1898년 12월, 마침내 군대가 움직였다. 사령관은 1899년 10월에야 메리다 북부의 항구인 쁘로그레소(Progreso)에서 출발하였다. 할리스꼬 출신의 브라보(Ignacio A. Bravo) 장군이 이끌었다. 브라보는 오르띠스(Angel Ortiz Monasterio) 장군이 꼬수멜(Cozume)에서부터 끌고 온 포병대와 같이 작전을 하였다. 오르띠스는 체뚜말(Chetumal)에 정박하며 10월에는 스깔락(Xcalak) 항구를 건설했다. 얼마 후 지휘권은 베라꾸르스로 여러 연대의 지휘관인 데 라 베가(José María de la Vega) 장군으로 바뀌었다. 그는 1901년 3월, 온도강 어귀에 정박하였다. 온도강 북쪽의 초원지대를 지나 바깔라르(Bacalar)로 들어갔다. 그곳은 이미 아무도 없었다.
>
> 브라보 장군은 유까딴 정부로부터 전쟁비용으로 많은 돈(30만 뻬소)를 받고, 그의 군대는 상황을 감시하고, 전쟁의 진전에 대해 디아스 대통령과 "전쟁과 해양성"의 비서에게 수시로 보고하였다. 마침내 1900년 10월, 브라보는 남동쪽을 향해갔다. 사반까지 철로를 놓고 있었다. 가는 길에는 삼각형의 축성과 역을 세웠다. 꾸르스옵과 직접적인 전쟁은 없었지만, 가끔 복병을 만났고, 우물은 메워져 있었으며, 상당한 지역이 다 타 있기도 했다. 1901년 1월, 브라보는 노흐뽑(Nohpop)에 다다랐다. 찬 산따 꾸르스에서 약 23km 떨어진 지점이었다. 거기서 꾸르스옵과 작은 전투가 있었다. 브라보는 성소를 치려고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사박체(Sabacche)와 찬 끽(Chankik) 등 주위의 마을을 요새화하였다. 4월 중순, 한 마부가 잃어버린 노새를 찾아 헤매다가 버려진 몇 개의 건물을 보았다. 연방군대는 찬 산따 꾸르스가 버려져 있는 것을 알았다. 1901년 5월 3일, 산따 꾸르스의 날에 브라보는 아무 저항 없이 성소에 들어

섰다."
(Dumond 2005; Reed 2002에서 요약)

연방군대가 찬 산따 꾸르스를 점령했다는 소식은 재빠르게 퍼져 나갔다. 이 소식은 다음 날 '디아리오 데 유까딴' 신문에 나왔다. 디아스(Porfirio Diaz) 대통령은 유까딴 주지사 깐똔에게 축하하는 편지를 썼다. 6월 중순 깐똔은 찬 산따 꾸르스로 브라보를 축하하러 갔다. 성소의 첫 번째 사진을 찍고 깐똔은 동쪽 지대를 식민하겠다고 선언했다. 찬 산따 꾸르스는 산따꾸르스 데 브라보[27]로, 바깔라르는 바깔라르 데 세띠나[28]로 개명되었다. 전쟁의 정리는 1902년 3월에 끝났다.

3년 후, 1904년 6월 1일, 공식적으로 마야 반란군과의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디아스 대통령은 마지막 반란을 진압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Careaga 1990, 137).

Ⅴ. 맺는말

중미의 5개국을 포함하는 이뚜르비데 시절의 멕시코의 지도를 보면(Pazos 1993, 80), 독립 당시에 멕시코는 과달라하라 및 멕시코 부왕령 전체와 과테말라까지 흡수하여 나라를 세울 욕심이 있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다른 이해관계가 있었으므로 분열과 전쟁은 필연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복잡했던 것이 유까딴의 문제였다. 독립 당시에 유까딴과 깜뻬체는 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열대 스텝 지대를 이루는 유까딴은 목축이 주산업으로 쿠바를 통하여 스페인과 교역하였고, 열대우림이 대

27) 현재는 까릴요 뿌에르또(Carillo Puerto)이다.
28) 현재는 바깔라르(Bacalar)이다.

부분을 이루는 깜뻬체는 교역의 중간 항구로서 멕시코와 관계가 깊어서 생존의 조건이 완전히 달랐다. 독립 후 분쟁이 시작한 지 얼마 안가서 깜뻬체는 멕시코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유까딴의 사정은 달랐다. 유까딴의 중심인 메리다에도 역시 의견이 다른 두 파가 있었으나 오히려 연방주의자의 세력이 더 컸다. 정치적 세력이 충돌하는 사이에 까스따 전쟁이 일어났다. 메리다의 연방주의자들과 마야원주민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추까깝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어서 까스따 전쟁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유까딴은 따로 독립을 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야 원주민과의 전쟁이 계속되자 메리다 정부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멕시코정부의 도움이 필요해졌다. 그들은 멕시코의 한 주가 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즉 멕시코 중앙정부로서는 마야원주민과의 전쟁 덕분에 현재의 유까딴 주를 손쉽게 포함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때까지도 유까딴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은 반도의 북부와 서쪽뿐이었다.

반도 중앙부와 동편은 두 원주민 그룹, "남쪽의 평화주의자"와 "동쪽의 무서운 자"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두 마야 원주민 그룹 또한 삶의 조건이 달랐다. "남쪽의 평화주의자(Sublevados Pacíficos del Sur)"들은 원래의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위환경에서 얻은 것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했다. 그들은 유까딴 및 멕시코 정부와 평화 협정을 맺어, 중앙정부에 속하나 자주적으로 사는 쪽을 택했다.

그러나 "동쪽의 무서운 자(Sublevados Barvas del Oriente)", 꾸르스옵(Cruzob)은 달랐다. 그들은 유까딴 반도 북, 서부에서 식민지 시절 내내 핍박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밀린 곳에 마을을 이루어 살게 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백인들과의 평화는 없었다. 따라서 유까딴의 백인들과 평화를 이루고 자신들의 삶을 고수하려는 "남쪽의 평화주의자"들은 그들에게는 배신자들이었고, 공격의 대상이었다. 대신에 벨리

즈와는 잘 지냈는데, 꾸르스옵은 벨리즈를 통하여 전쟁을 계속할 무기를 구입하였기 때문이다.

이까이체를 비롯한 "남쪽의 평화주의자"들은 벨리즈와도 반목을 하였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벨리즈가 그들의 삶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 현재 멕시코와 국경을 이루는 온도강(río Hondo)과 누에보강(río Nuevo) 주위의 벨리즈는 불법으로 벌목을 하던 영국 사람들이 주저앉아 살면서 이루어진 마을이다. 그들은 물감 나무, 까오바 나무, 치끌레 나무 등 "남쪽의 평화주의자"들의 생업이 되는 나무를 벌목하여왔다. "남쪽의 평화주의자"들은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으려고 했고, 이를 거절하자 전쟁을 주저하지 않았다. 특히 이까이체의 지도자 까눌은 개인적으로도 이 벌목회사와 반목이 있었다. 즉 "남쪽의 평화주의자"들이 굳이 꾸르스옵을 반대하고 유까딴을 도우기 위해서 벨리즈와 싸우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꾸르스옵이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벨리즈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얻기 위하여 동맹하였다면, "남쪽의 평화주의자"들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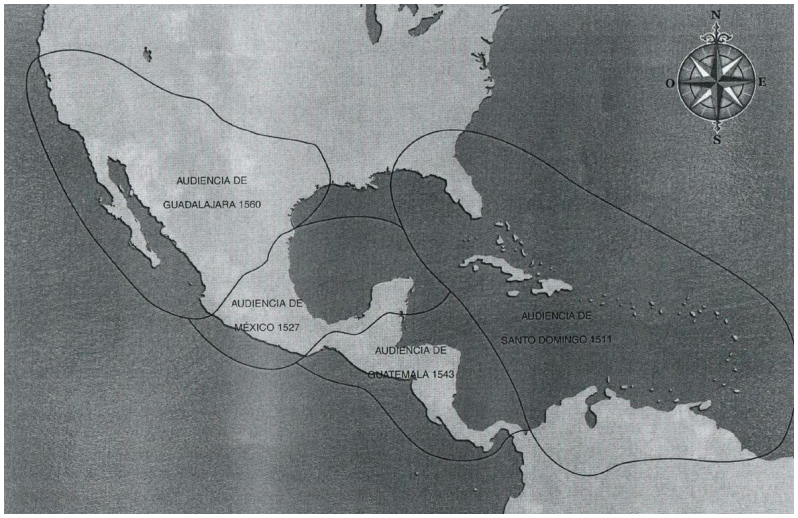
유까딴 정부는 벨리즈의 도움이 필요했다. 벨리즈가 꾸르스옵에게 무기를 파는 한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남쪽의 평화주의자"들은 유까딴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라 벨리즈와의 싸움을 중지하였다. 다른 한편, 유까딴 정부는 꾸르스옵 반란군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1887년 마리스칼이 제안했던 국경, '온도 강 이남의 땅에 영국의 주권'을 1893년에 마침내 인정하게 되었다. "남쪽의 평화주의자" 및 벨리즈와 동맹을 맺어 서쪽과 남쪽의 배후를 튼튼히 하고도, 멕시코와 유까딴 정부가 꾸르스옵을 정벌하기 위해 하는 행동은 국가 간의 거대한 전투를 방불케 한다. 유까딴은 의회를 소집하여 전쟁비용을 의결하고, 전화선을 깔아 연락망을 확충하고, 철로를 깔

아서 물자를 대고, 도로를 깔아서 군대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였다. 몇 개의 연대가 동원되고, 지휘자는 전국에서 뽑은 장군들이었다. 그러나 용의주도하게 준비된 이 군대가 1902년에 찬 산따 꾸르스의 성소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이미 버려져 있었다.

멕시코는 꾸르스옵을 무너뜨림으로써 이들이 지배하던 현재의 낀따나로 주의 땅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남쪽의 평화주의자'가 머무는 지역과 이까이체도 평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꾸르스옵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들이 주권을 주장하던 벨리즈의 땅은 영구히 잃어버렸다. 꾸르스옵이 무너지면서 마침내 벨리즈와 멕시코 사이에는 현재의 국경이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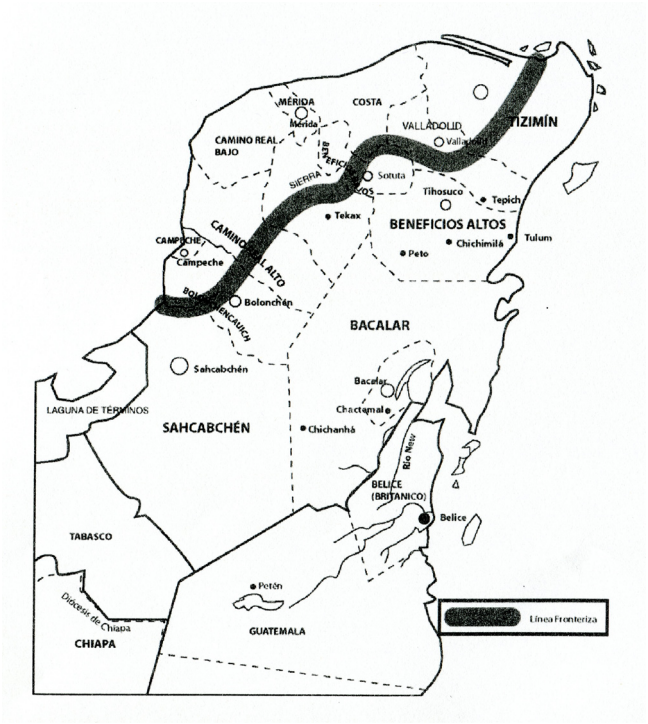
꾸르스옵이 무너진 것은 유까딴과 멕시코정부군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살 수 있는 조건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꾸르스옵은 반란의 결과로 이루어진 '찬 산따 꾸르스'를 마야원주민들의 나라로 키우는 시도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동료였던 '남쪽의 평화주의자'들을 적으로 돌려 고립을 자초하였고, 그리고 벨리즈를 통하여 구입하는 무기에만 의존하여 자신들의 땅을 지키려고 하여 한계에 도달했다. 그런데, 꾸르스옵이 무너지고 나서도 유까딴 반도의 중부 및 동부가 완전히 평정되어 유까딴, 깜뻬체, 낀따나로 주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낀따나로가 독립된 주로 선언된 것은 70년 후인 1974년 10월이었다(Careaga 1990, 242). 즉 이 공간은 그 때까지도 흩어진 마야원주민들의 땅이었고, 정부의 행정력이 온전히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다. 스페인이 점령한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진 마야원주민의 나라가 스스로 무너진 것은, 식민지 시대를 거친 마야원주민 사회에 대해 연구할 점이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림 1〉 식민시대의 부왕령(audiencia)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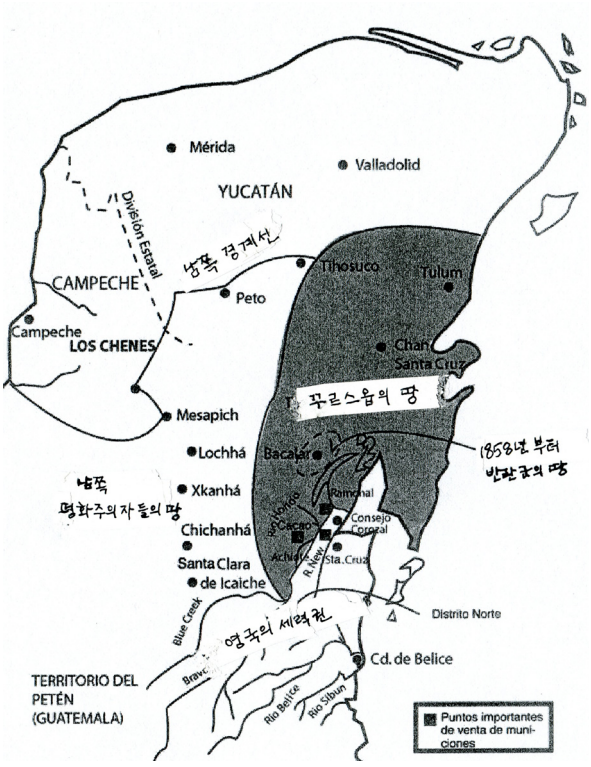
(Sanchez et al., 2008: 195)

〈그림 2〉 독립당시 유까딴의 영향권, 검은 선의 왼쪽 윗 부분



(Sweeney 2006, 48)

〈그림 3〉 남쪽의 평화 봉기자들(가운데 흰 부분)의 영역과 꾸르스옵(오른쪽 검은 부분)의 영역



(Sweeney 2006, 79)

참고문헌

민만식, 강석영, 최영수(1993),『중남미사-중남미 근현대 정치사』, 민음사.

정혜주(2011),「유까딴 까스따 전쟁의 사회적 의의」,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4, No.1,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pp.129-153.

Berzunza Pinto, Ramón(1997), *Guerra Social en Yucatán,* México, Maldonado editores, Gobierno del Estado Secretaria de Educación.

Careaga Viliesid, Lorena(1990), *Quintana Roo: Una historia compartida,*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Dr. José María Luis Mora, México D.F.

De Castre, Inés(2006), "Cantones y Comandantes: Aspectos políticos de los Pacíficos del Sur durante la Guerra de Castas de Yucatan", en *Los Mayas de Ayer y Hoy,* Alfredo Barrera Rubio y Ruth Gubler, eds. UADY, CONACULTA, centro INAH de Yucatan, Mérida, pp.923-936.

Dumond, Don E(2005), *El Machte y la Cruz: La sublevación de campesinos de Yucatán,* México,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Filológicas, UNAM. 첫판 1997,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Ferrer Muñoz, Manuel(2004), "La coyuntura de la independencia en Yucatan", 1810-1821, *La Independencia en el Sur de México,* coord. Ana Carolina Ibarra, IIH, UNAM, pp.343-394.

Hernández Chávez, Alicia, *Mexico; A Brief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ndy Klatt 역(2006), Berkeley, Los Angeles, London.

Laporte, Marie(1997), *Los Mayas Rebeldes de Yucatán,* Maldonado editores, Mérida: Yucatán.

Meyer, Michael C., William H. Beezley(2000), *The Oxford history of Mexico,*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Pasos, Luis(1993), *Historia Sinóptica de México: De los Olmecas a Fox,* México DIANA editorial: México.

Polushin, Michael A.(2004), "Por la Patria, el Estado y la Religión": la expulsión del intendente accidente de Ciudad Real, Chiapas(1809), *La Independencia en el Sur de México,* coord. Ana Carolina Ibarra, IIH, UNAM: México, pp.291-317.

Reed, Nelson(2002), *La Guerra de Castas de Yucatán,* Mexico, Ediciones Era, S.A. de C.V., 1964 영어본 첫 출판.

Rugeley, Terry(1996), *Yucatan's Maya Peasantry and the Origin's of the Caste War,*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Sánchez Córdova, Humberto, Lilia Romo, Rosa Parcelo, and Laura de la Torre(2008), *Historia de México I: Un enfoque constructiva.* PEARSON educación.

Sweeney, Lean (2006), La Supervivencia de los Bandidos: los mayas icaichés y la política fronteriza del sureste de la península de Yucatán, 1847-1904, Cooerdinación de Humanidades unidad académica de Ciencias Sociales Humanidades, UNAM, Mérida, México.

▌논문투고일자: 2011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자: 2011년 6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6월 8일